식품의약품안전처
방송통신심의위원회

보도자료

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11.26.(화) 16:00 배포 2024. 11. 26.(화)

식품의약품안전처-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불법·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온라인 식·의약 등 불법판매·부당광고 신속 차단 위해 공동대응키로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위원장 류희림)와 **온라인**상 **식품·의약품 불법유통·부당광고를 근절**하기 위한 **업무협약**(MOU)**을 체결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되었다.

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**▲식품·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·부당·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▲식품·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·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▲안전한 온라인 식품·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▲온라인 식품·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** 등이다.

오유경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"**유통 환경 변화**와 함께 최근 **온라인**에서 **마약류**나 **전문의약품** 등을 **불법 판매·알선하는 게시글**이 **계속**해서 **등장**하고 있다"며, "**국민께 피해가 없도록** 이를 **신속하게 차단**하기 위해 **양 기관**이 **시스템**을 **연계**하고 **적극적으로 협력**하자"고 강조했다.

류희림 위원장은 "온라인 불법 식·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**신속한 대응**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, **식·의약품 안전**을 **책임**지는 주무부처인 **식약처와의 상호 협력**과 **공동 대응**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"며, "앞으로 업무협약이 **실질적인 성과**를 거둘 수 있도록 **노력**하겠다"라고 말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**온라인 식·의약 불법판매·부당광고를 조기에 차단**하여 **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**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	책임자	과 장	박영민 (043-719-1901)
		담당자	사무관	장수용 (043-719-1902)
담당 부서	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	책임자	팀 장	구진욱 (02-3219-5140)
		담당자	과 장	김연규 (02-3219-5145)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늘여갈 안심기준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